

## [성주간] 성지주일 수난복음 다해

루카 22, 14 - 23, 56



루 카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.



시 간 이 되 자 예 수 님 께 서 사 도 들 과 함 께 자 리 에 앉 으 셸 다.



그 리 고 그 들 에 게 이 르 셸 다. ["내 가 고 난 을 겪 기 전 에 너 희



와 함 께 이 파 스카 음 식 을 먹 기 를 간 절 히 바 랐 다.



내 가 너 희 에 게 말 한 다. 파 스카 축 제 가 하 느 님 의 나 라 에 서



다 이 루 어 질 때 까 지 이 파 스카 음 식 을 다 시 는 먹 지 않 겠 다."] ]



예 수 님 께 서 잔 을 받 아 감 사 를 드 리 시 고 나 서 이 르 셸 다.



["이 것 을 받 아 나 누 어 마 셔 라. 내 가 너 희 에 게 말 한 다.



나 는 이 제 부 터 하 느 님 의 나 라 가 올 때 까 지 포 도 나 무 열 매 로





누 구 일 까 하 고 서 로 묻 기 시 작 하 였 다. 사 도 들 가 운 데 에



서 누 구 를 가 장 높 은 사 람 으 로 볼 것 이 냐 는 문 제 로 말 다



툼 이 벌 어 졌 다. 그 러 자 예 수 님 께 서 그 들 에 게 이 르 셴 다.

(그리스도)



["민 족 들 을 지 배 하 는 임 금 들 은 백 성 위 에 군 림 하 고, 민 족 들 에



게 권 세 를 부 리 는 자 들 은 자 신 을 은 인 이 라 고 부 르 게 한 다.



그 러 나 너 희 는 그 령 게 해 서 는 안 된 다. 너 희 가 운 데 에 서



가 장 높 은 사 람 은 가 장 어 린 사 람 처 럼 되 어 야 하 고 지



도 자 는 섬 기 는 사 람 처 럼 되 어 야 한 다. 누 가 더 높 으 냐?



식 탁 에 앉 은 이 냐, 아 니 면 시 중 들 며 섬 기 는 이 냐? 식 탁 에



앉 은 이 가 아 니 냐? 그 러 나 나 는 섬 기 는 사 람 으 로 너 희 가

운 데 에 있 다. 너 희 는 내 가 여 러 가 지 시 련 을 겪 는 동 안 에

나 와 함 께 있 어 준 사 람 들 이 다. 내 아 버 지 께 서 나 에 게 나 라 를

주 신 것 처 럼 나 도 너 희 에 게 나 라 를 준 다. 그 리 하 여 너 희 는

내 나 라 에 서 내 식 탁 에 앉 아 먹 고 마 실 것 이 며, 옥 좌 에 앉 아

이 스라 엘 의 열 두 지 파 를 심 판 할 것 이 다. 시 몬 아, 시 몬 아! 보 라,

사 탄 이 너 희 를 밀 처 럼 체 질 하 겠 다 고 나 섰 다. 그 러 나 나 는

너 의 믿 음 이 꺼 지 지 않 도 록 너 를 위 하 여 기 도 하 였 다.

그 러 니 네 가 돌 아 오 거 든 네 형 제 들 의 힘 을 북 돋 아 주 어 라.

(해설자) (다른사람)  
베 드 로 가 말 하 였 다. ["주 - 님, 저 는 주 님 과 함 께 라 면

감 옥 에 갈 준 비 도 되 어 있 고 죽 을 준 비 도 되 어 있 습 니 다."]





(해설자)  
지 게 하 십 시 오."] 그 때 에 천 사 가 하 늘 에 서 나 타 나 예 수 님

의 기 운 을 복 돌 아 드 렸 다. 예 수 님 께 서 고 뇌 에 싸 여 더 욱

간 절 히 기 도 하 시 니, 땀 이 핏 방 을 처 럼 되 어 땅 에 떨어 졌 다.

그 리 고 기 도 를 마 치 고 일 어 나 시 어 제 자 들 에 게 와 서 보 시 니,

그 들 은 슬 픔 에 지 쳐 잠 들 어 있 었 다. 예 수 님 께 서 그 들 에 게

(그리스도)  
이 르 셧 다. ["왜 자 고 있 느 냐? 유 혹 에 빠 지 지 않 도 록 일 어 나

(해설자)  
기 도 하 여 라."] 예 수 님 께 서 아 직 말 씀 하 고 계 실 때 에 한

무 리 의 사 람 들 이 나 타 났 는 데, 열 두 제 자 가 운 데 하 나 로

유 다 라 고 하 는 자 가 앞 장 서 서 왔 다. 그 가 예 수 님 께 입 맞 추

려 고 다 가 오 자, 예 수 님 께 서 그 에 게 말 씀 하 셧 다.



(그리스도)

["유 다 야, 너 는 입 맞 춤 으 로 사 람 의 아 들 을 팔 아 넘 기 느 냐?"]



(해설자)

예 수 님 둘 레 에 있 던 이 들 이 사 태 를 알 아 차 리 고 말 하 였 다.

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["주 - 님, 저 희 가 칼 로 쳐 버 릴 까 요?"] 그 들 가 운 데 한 사 람 이



대 사 제 의 종 을 쳐 서 그 의 오 론 쪽 귀 를 잘 라 버 렸 다. 그 러 자



(그리스도)

(해설자)

예 수 님 께 서 말 씀 하 셴 다. ["그 만 해 두 어 라."] 예 수 님 께 서 는



대 사 제 의 종 의 귀 에 손 을 대 어 고 쳐 주 셴 다. 그 러 고 나 서



그 분 께 서 는 당 신 을 잡 으 러 온 수 석 사 제 들 과 성 전 경 비



(그리스도)

대 장 들 과 원 로 들 에 게 이 르 셴 다. ["너 희 는 강 도 라 도 잡 을



듯 이 칼 과 몽 등 이 를 들 고 나 왔 단 말 이 냐? 내 가 날 마 다



너 희 와 함 께 성 전 에 있 을 때 에 는 너 희 가 나 에 게 손 을 뺄 치



지 았 다. 그 러 나 이 제 는 너 희 때 요 어 둠 이 권 세 를 떨 칠

(해설자)  
때 다."] 그 들 은 예 수 님 을 붙 잡 아 끌 고 대 사 제 의 집 으 로 데

려 갔 다. 베 드 로 는 멀 짝 이 떨 어 저 뒤 따 라 갔 다. 사 람 들 이

안 뜰 한 가 운 데 에 불 을 피 우 고 함 께 앓 아 있 었 는 데, 베 드 로 도

그 들 가 운 데 끼 어 앓 았 다. 그 런 데 어 떤 하 녀 가 불 가 에 앓 은

베 드 로 를 보 고 그 를 주 의 깊 게 살 피 면 서 말 하 였 다.

(다른사람) (해설자)  
["이 이 도 저 사 람 과 함 께 있 었 어 요."] 베 드 로 는 부 인 하 였 다.

(다른사람) (해설자)  
["이 여 자 야, 나 는 그 사 람 을 모 르 네."] 얼 마 뒤 에 다 른 사 람 이

(다른사람)  
베 드 로 를 보 고 말 하 였 다. ["당 신 도 그 들 과 한 패 요."]

(해설자) (다른사람) (해설자)  
베 드 로 가 말 하 였 다. ["이 사 람 아, 나 는 아 닐 세."] 한 시 간 쯤

(다른사람)  
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. ["이이도 갈릴

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 없소."]

(해설자) (다른사람)  
베드로는 말하였다. ["이 사람아,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

(해설자)  
하는지 모르겠네."]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

었다.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.

베드로는 주님께서 "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

모른다고 할 것이다."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, 밖으로 나가

슬피 울었다.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

(다른사람)  
조롱하였다.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. ["알아 맞혀

(해설자)  
보아라,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?"]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



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. 날이 밝자 백성의 원



로 단,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



최고의 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. ["당신이 메시아라면



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십시오."]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

["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, 내가



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. 이제부터



'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' 것이다."]



그러자 모두 물었다. ["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



이라는 말이오?"]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. ["내가 그러하



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."] 그들이 말하였다. ["이제 우리



에 게 무 슨 증 언 이 더 필 요 합 니 까? 제 입 으 로 말 하 는 것 을



(해설자)

우 리 가 직 접 들 었 으 니 말 입 니 다."] 온 무 리 가 일 어 나 예 수



님 을 빌 라 도 앞 으 로 끌 고 갔 다. 그 리 고 예 수 님 을 고 소 하



(다른사람)

기 시 작 하 였 다. ["우 리 는 이 자 가 우 리 민 족 을 선 동 한 다



는 사 실 을 알 아 났 습 니 다. 황 제 에 게 세 금 을 내 지 못 하 게



(해설자)

막 고 자 신 을 메 시 아 곧 임 금 이 라 고 말 합 니 다."] 빌 라 도 가

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예 수 님 께 물 었 다. ["당 신 이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?"] 예 수 님



(그리스도)

(해설자)

께 서 대 답 하 셧 다. ["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."] 빌 라 도 가



(다른사람)

수 석 사 제 들 과 군 중 에 게 말 하 였 다. ["나 는 이 사 람 에 게 서



(해설자)

아 무 죄 목 도 찾 지 못 하 겠 소."] 그 러 나 그 들 은 완 강 히 주 장

(다른사람)



하 였 다. ["이 자 는 갈 릴 래 아 에 서 시 작 하 여 이 곳 에 이 르 기



까 지, 온 유 다 곳 곳 에 서 백 성 을 가 르 치 며 선 동 하

(해설자)



고 있 습 니 다."] 이 말 을 들 은 빌 라 도 는 이 사 람 이 갈 릴 래



아 사 람 이 냐 고 물 더 니, 예 수 님 께 서 헤 로 데 의 관 할 에 속 한



것 을 알 고 그 분 을 헤 로 데 에 게 보 냈 다. 그 무 렵 헤 로 데 도



예 루 살 렘 에 있 었 다. 헤 로 데 는 예 수 님 을 보 고 매 우 기 빠



하 였 다. 예 수 님 의 소 문 을 듣 고 오 래 전 부 터 그 분 을 보 고



싶 어 하 였 을 뿐 만 아 니 라, 그 분 께 서 일 으 키 시 는 어 떤 표 징



이 라 도 보 기 를 기 대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. 그 래 서 헤 로 데 가



이 것 저 것 물 었 지 만, 예 수 님 께 서 는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으



셨다.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서 예수



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. 헤로도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



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,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



도에 돌려보냈다.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도



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서로 친구가 되었다. 빌라도는



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

(다른사람)



말하였다. ["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



에게 끌고 왔는데, 보다 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



보았지만,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



나도 찾지 못하였소.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

보 낸 것 을 보 면 그 도 찾 지 못 한 것 이 오. 보 다 시 피 이 사

람 은 사 형 을 받 아 마 땅 한 짓 을 하 나 도 저 지 르 지 않 았 소.

(해설자)  
그 러 니 이 사 람 에 게 매 질 이 나 하 고 풀 어 주 겠 소."] 수 석 사 제

(회중)  
들 과 지 도 자 들 과 백 성 은 일 제 히 소 리 를 질 렸 다. ["그 자 는

(해설자)  
없 애 고 바 라 빠 를 풀 어 주 시 오."] 바 라 빠 는 예 루 살 렘 에 서

일 어 난 반 란 과 살 인 으 로 감 옥 에 갇 혀 있 던 자 였 다.

빌 라 도 는 예 수 님 을 풀 어 주 고 싶 어 서 그 들 에 게 다 시 이 야

기 하 였 지 만, 수 석 사 제 들 과 지 도 자 들 과 백 성 은 외 쳤 다.

(회중)  
["그 자 를 십 자 가 에 못 박 으 시 오! 십 자 가 에 못 박 으 시 오!"]

(해설자) (다른사람)  
빌 라 도 가 세 번 째 로 그 들 에 게 말 하 였 다. ["도 대 체 이 사 람 이

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? 나는 이 사람에게서

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. 그래서

(해설자)  
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."] 그러자 그들이

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

하는데,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. 마침내 빌라도는

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결정하였다. 그리하여 그는

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

대로 풀어 주고,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 주

었다.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, 시골에서 오고 있던

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





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.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



따라갔다.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



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.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

(그리스도)



돌아서서 이르셨다. ["예루살렘의 딸들아, 나 때문에 울지



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. 보라, '아이를



낳지 못하는 여자, 아이를 배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



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!'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.



그때에 사람들은 '산들에게 '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.' 하고



언덕들에게 '우리를 덮어다오.' 할 것이다. 푸른 나무가



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?"]

(해설자)



그 들 은 다 른 두 죄 수 도 처 형 하 려 고 예 수 님 과 함 께 끌 고



갔 다. '해 골' 이 라 하 는 곳 에 이 르 러 그 들 은 예 수 님 과 함 께



두 죄 수 도 십 자 가 에 못 박 았 는 데, 하 나 는 그 분 의 오 른 쪽 에



다 른 하 나 는 왼 쪽 에 못 박 았 다. 그 때 에 예 수 님 께 서 말 씀 하

(그리스도)



셨 다. ["아 버 지, 저 들 을 용 서 해 주 십 시 오. 저 들 은 자 기

(해설자)



들 이 무 슌 일 을 하 는 지 모 름 니 다."]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



박 은 자 들 이 제 비 를 뿔 아 예 수 님 의 겉 옷 을 나 누 어 가 졌 다.



백 성 들 은 서 서 바 라 보 고 있 었 다. 그 러 나 지 도 자 들 은 빈 정 거 렸 다.

(다른사람)



["이 자 가 다 른 이 들 을 구 원 하 였 으 니, 정 말 하 느



님 의 메 시 아, 선택 된 이 라 면 자 신 도 구 원 해 보 라 지."]





[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.]

(해설자)

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



그 리 고 시 신 을 내 려 아 마 포 로 감 썬 다 음, 바 위 를 깎 아 만 든



무 덤 에 모 션 다. 그 것 은 아 직 아 무 도 묻 힌 적 이 없 는 무 덤



이 었 다. 그 날 은 준 비 일 이 었 는 데 안 식 일 이 시 작 될 무 렵



이 었 다. 갈 림 래 아 에 서 부 터 예 수 님 과 함 께 온 여 자 들 도



뒤 따 라 가 무 덤 을 보 고 또 예 수 님 의 시 신 을 어 똥 게 모 시 는



지 지 켜 보 고 나 서, 돌 아 가 향 료 와 향 유 를 준 비 하 였 다.



그 리 고 안 식 일 에 - 는 계 명 에 따 라 쉬 었 - 다.



주 님 의 말 - 씬 입 니 다. 그리 - - 스도 - 님 찬 미 합 니 다.